

조동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한 후 걸프오일 회사를 거쳐 197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전략 및 국제경영 교수로 봉직하면서 국제지역원 원장과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2014년 6월부터는 중국 북경에 있는 미국형 경영대학인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 교수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다.

조 교수는 영어 16권, 중국어 5권을 포함한 65권의 저서와 100여 편의 학술논문을 출판했고, 전략경영학회 창립회장, 디자인브랜드경영학회 창립회장, 지속경영학회 창립회장, 경영학회 회장, 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동시에 중국 장강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핀란드 명예총영사, 코리아오토포럼 회장,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K-리그 이사, 세계은행 자문,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 국가브랜드진흥원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

그는 조직의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s)과, 이들을 조합(Combination), 순열(Permutation), 시간(Time)으로 연계한 메커니즘(Mechanism)을 그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파악하는 SER-M 모델과, 이 중에서 마지막 요소인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메커니즘 기반 관점(Mechanism-Based View)을 연구해왔다. 그의 최근 저서인 "메커니즘 기반관점"은 대한민국학술원에서 2015년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중국정부에서는 2014년 조 교수에게 SER-M을 이용하여 113개 국유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 개발을 의뢰했고, 2015년부터는 이 모델에 입각하여 실제 기업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그가 개발한 국가경쟁력의 9요소 모델(9-Factor Model in National Competition), 환경창조메커니즘(Environment Creating Mechanism), 디자인이론(the Design Theory)은 전세계 학계와 기업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학, 윤리, 디자인, 예술 등 학문 간의 통섭을 통한 창조경영(Creative Management) 이론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인제대학교와 핀란드 Aalto University 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으로부터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받았다.

경영학과 윤리, 디자인, 예술 등 학문 간의 통섭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도전하는 조 교수의 연구실은 한국 전략과 국제경영 학자들의 산실이다. 조 교수 문하의 제자 70 여명이 국내 우수 대학에서 이론 개발과 후진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